CONDERI

MARKET & INDUSTRY INSIGHT | 대외 공개판

5,000을 되찾은 하루, 개인은 2조430억을 팔았다

The Index Came Back, the Buyers Changed — Two Sidecars and Three Bills

이 리포트가 다루는 것

11월 24일 코스피는 6.32% 오른 5,006.03으로 마감하며 사흘 만에 5,000선을 되찾았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 기관은 8,692억 원을 샀습니다. 그날 개인은 2조430억 원을 팔았습니다. 같은 주에 미국은 한국산 제품의 관세 상한 15%를 흔들 수 있는 301조 조사 결과를 예고했고, 한국은행은 11월 26일 3.25% 인상을 결정합니다. 지수가 회복된 이유와, 여전히 남은 세 장의 청구서를 숫자로 읽습니다.

5,006.03
코스피 11/24
+6.32% · 사흘 만 회복

+7,391억
외국인 코스피
8거래일 만 순매수

−2조430억
개인 코스피
같은 날 순매도

3.25%
11/26 금통위
컨센서스

I 두 사이드카
누가 샀고
누가 팔았나

II 금리
3.25%의
청구서

III 반도체
이틀 동안
두 번 매겨진 값

IV–VI 통상·자본
15% 상한과
300억 라운드

i. 요약 — 주인이 바뀐 반등

A rally led by foreigners and institutions, funded by retail selling

+6.32%	+4.79%	+8,692억	−2조430억	49.0%
코스피 11/24 5,006.03	코스닥 11/24 665.88	기관 코스피 순매수	개인 코스피 순매도	10월 반도체 수출 비중

한 문장

지수를 되돌린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돈**이었고, 그 돈을 받아낸 것은 **개인의 매도**였습니다. 회복의 주체가 바뀐 하루였고, 바뀐 주체는 관세와 금리 앞에서 다시 시험받습니다.

숫자가 말한 것

한국거래소: 코스피 +297.49p(+6.32%) 5,006.03, 장중 5,065.74. 외국인 +7,391억 원(8거래일 만 순매수), 기관 +8,692억 원, 개인 −2조430억 원. 코스닥 665.88(+4.79%). 양대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 뉴욕: 나스닥 −1.45%, S&P500 −0.48%, 다우 +0.87%.

되찾은 것과 되찾지 못한 것

코스피는 11월 20일 10개월 최저까지 밀렸다가 사흘 만에 5,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실적 전망의 변화가 아니라 **엔비디아 CEO 복귀**라는 사건 하나였습니다. 같은 이유가 사라지면 같은 속도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주의 세 장의 청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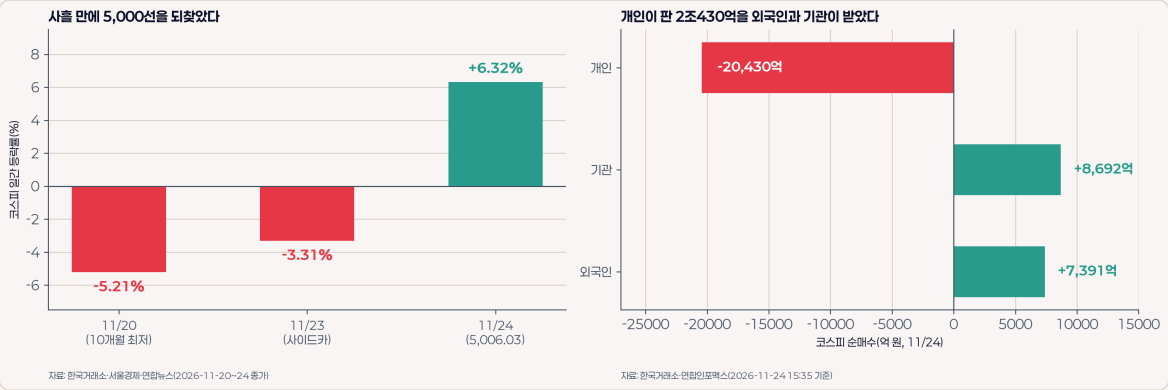
11/26 한국은행 금통위(3.25% 전망), 이번 주 미국의 301조 과잉생산 관세 발표, 그리고 다음 주 미국 PCE와 12월 FOMC입니다. 세 장 모두 **할인율과 마진**에 직접 닿습니다.

이 문서를 읽는 방법

이 리포트는 공개된 보도·공시·기관 자료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모든 수치는 발행일 기준 확인 가능한 값이며, 확인되지 않은 전망은 인용한 기관의 이름과 함께 표시했습니다. 본문의 해석과 판단은 콘데리 AI산업전략연구실의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I. 두 개의 사이드카

Two sidecars in two days: who bought and who sold



자료: 한국거래소·서울경제·연합인포맥스(2026-11-20~24 종가, 11/24 15:35 기준)

11월 24일의 타임라인

코스피는 11월 24일 4,880.16(+3.64%)에 출발해 장중 5,065.74(+7%대)까지 올랐고, 막판 개인 매도로 상승분 일부를 반납한 뒤 5,006.03(+297.49p, +6.3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4.79% 오른 665.88이었고, 양대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11월 23일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지 하루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대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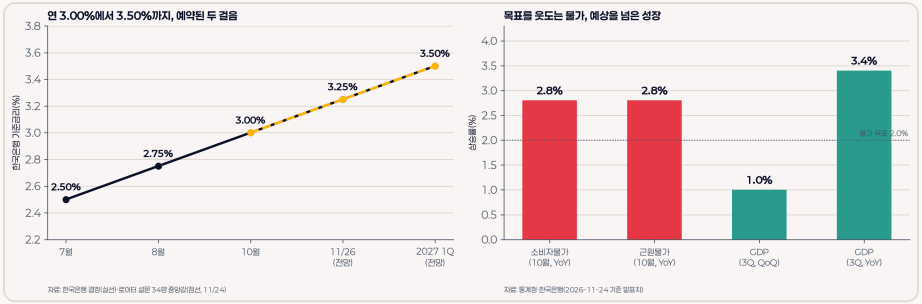
수급의 주인이 바뀌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7,391억 원을 순매수하며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끊었습니다. 기관은 8,692억 원을 샀고, 그 안에서는 금융투자(+2,511.6억), 투신(+2,205.8억), 연기금(+3,024.3억), 사모(+1,135.5억)가 고르게 플러스를 냈습니다. 반대편에서 개인은 2조430억 원을 팔았습니다. 지난 23일 개인(−3,670억)과 외국인(−2,371억)이 함께 팔고 기관만 받았던 구도와 정확히 뒤집힌 그림입니다.

요약 **반등의 재료는 실적이 아니라 사건이었다. 사건은 되돌릴 수 있지만, 바뀐 수급 주체는 남는다**

II. 3.25%의 청구서

The bill that arrives on November 26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로이터 설문(11/24, 경제학자 34명), 통계청·한국은행 발표치

지표	확인된 값	다음 관문
기준금리	연 3.00% (7·8월 인상, 10월 동결)	11/26 금통위. 로이터 설문 34명 중 32명이 3.25% 인상 전망, 최종금리 3.50%(2027년 1분기)
채권시장 심리	12월 종합 BMSI 78.7 (전월 대비 −20.4p), 금리전망 BMSI 72.0 (−51.0p)	금투협 설문에서 54%가 11월 인상, 46%가 동결 전망. 인상 쪽으로 기울었지만 만장일치는 아님
물가	10월 소비자물가 2.8%, 근원물가 2.8% (목표 2.0%)	한은은 물가가 2%로 돌아오는 시점을 2027년 하반기로 봅니다
성장	3분기 GDP 전기 대비 +1.0%, 전년 대비 +3.4%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3.3%)은 3%대 후반으로 상향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수출·환율	1~3분기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약 3배, 원화는 연초 이후 약 7% 절상	반도체 호황이 금리 인상의 명분을 만들고, 강한 원화는 인상 압력을 일부 덜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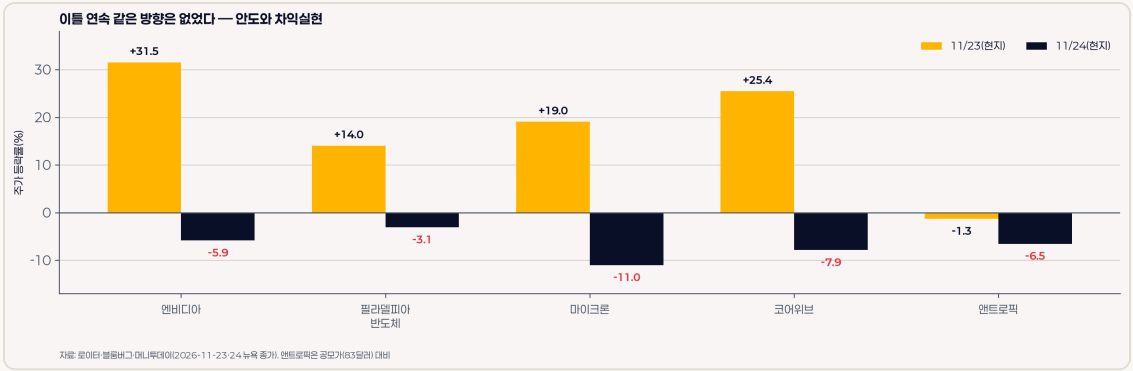
인상은 이미 값에 들어 있다

시장이 보는 것은 인상 여부가 아닙니다. 인상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남은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점도표와 수정 성장률 전망**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둘째, 내년 1분기 한 차례 더 올린 뒤 정말 멈추는가. 로이터 설문의 중앙값은 3.50%에서 정점을 찍고 2027년 나머지 기간 동결입니다. 이 경로가 흔들리면 할인율 가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금리 **금리 인상은 예약된 비용이다. 시장이 다시 값을 매기는 것은 인상 횟수가 아니라, 그 비용을 감당할 성장의 지속성이다**

III. 반도체, 이틀

Two days, two prices: relief and profit-taking



자료: 로이터·블룸버그·머니투데이(2026-11-23·24 뉴욕 종가). 앤트로픽은 공모가(83달러) 대비

이틀 동안 두 번 매겨진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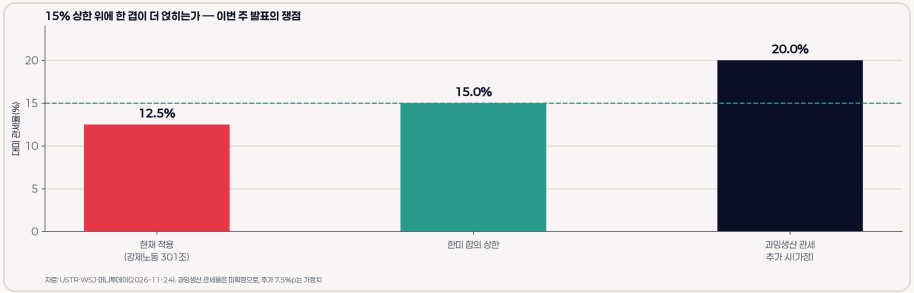
11월 23일(현지) 엔비디아는 31.5% 오른 165.05달러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4조1,100억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하루 만에 9,600억 달러가 돌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엔비디아는 5.86% 내린 155.38달러로 마감했고, 마이크론 −11.01%, 코어위브 −7.87%,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3%대 약세였습니다. 나스닥은 1.45% 내렸지만 다우는 0.87% 올랐습니다. **AI에서 빠진 돈이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업종으로 옮겨간** 하루였습니다.

확인된 사실	내용	출처·시점
엔비디아 실적	3분기 매출·이익 모두 시장 예상 상회. 4분기 가이던스 약 1,300억 달러(±3%), 매출총이익률 약 71.5%, 자사주 매입 한도 1,500억 달러 추가	엔비디아 발표(11/17)
앤트로픽 상장	공모가 83달러, 9억8,000만 주, 조달 813억 달러로 사상 최대 IPO. 상장 첫날 +17% 뒤 하락해 11/24 81.91달러로 공모가 아래	블룸버그·로이터(11/24)
AI 투자 규모	2026년 세계 AI 관련 투자 2조7,000억 달러, 2027년 3조6,000억 달러 전망	가트너
한국 증시	11/24 코스피 +6.32%, 외국인 8거래일 만 순매수. 반도체 수출이 10월 총수출의 49.0%	한국거래소·산업통상부

구조 **한 사람의 복귀로 9,600억 달러가 오갔다. 그 사실 자체가 이 산업의 가격이 얼마나 좁은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IV. 15% 상한의 시험대

This week's Section 301 decision and the Korean exposure



자료: USTR·WSJ·머니투데이(2026-11-24). 과잉생산 관세율은 미확정, 추가 7.5%p는 가정치

이번 주에 나오는 서류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24일(현지)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유럽연합·한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태양광, 기계류가 포함됩니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쟁점은 합산이다

한국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에서 이미 1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번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별도 관세로 부과될 때 **기존 관세와 합산되어 15% 상한을 넘는지**입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주시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미국은 별도로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CSAP)를 겨냥한 디지털 301조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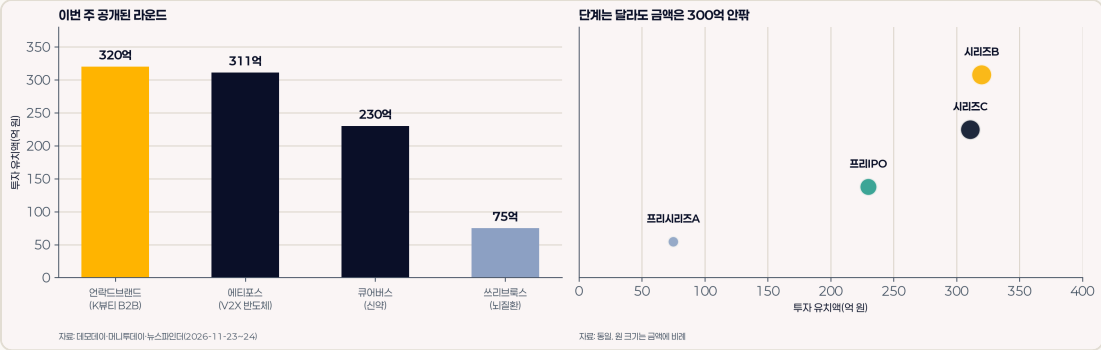
한국 경제의 노출도

10월 반도체 수출은 564억4,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1,152억8,000만 달러)의 49.0%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3.8%, 내년 3.9%를 전망하면서 반도체의 성장 기여도를 각각 약 1.9%p, 2.6%p로 추정했습니다. 내년 법인세 수입 200조 원의 절반가량도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관세와 AI 투자 사이클이 동시에 흔들리면 성장률·세수·소비가 함께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통상 **15%는 숫자가 아니라 계약이다. 계약이 지켜지는지를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된다**

V. 자본은 어디로 갔나

Where private capital went while the index rebounded



자료: 데모데이·머니투데이·뉴스파인더(2026-11-23~24 공개 라운드)

깊은 기술로 간 돈

차량사물통신(V2X) 반도체 기업 에티포스가 목표(250억 원)를 넘긴 311억 원 시리즈C를 마감했습니다. 산업은행·LB인베스트먼트·스틱벤처스·교보생명·메디치인베스트먼트·IBK캐피탈·한화자산운용이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팁스에 선정돼 4년간 50억 원을 확보한 덕에 라운드를 조기에 닫았습니다.

소비재도 300억을 넘었다

K뷰티 B2B 유통 언락드브랜드가 320억 원 시리즈B를 유치했습니다. 한국투자파트너스·본엔젤스·CJ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습니다. 신약 큐어버스 230억 원 프리IPO, 뇌질환 치료제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75억 원 프리시리즈A도 같은 주에 공개됐습니다.

두 주의 비교 — 금액은 커지고, 단계는 깊어졌다

11월 셋째 주(16~20일)에는 국내 스타트업 26곳이 투자를 유치했고, 금액을 공개한 8곳이 666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80.8%가 AI 로봇 내시경(메디인테크 338억 원)과 유리기판 소재(익스톨 200억 원)로 갔습니다. 넷째 주에는 반도체·K뷰티·신약이 각각 300억 안팎을 확보했습니다. 공통점은 **매출이나 계약이 확인되는 기업**에 자금이 몰린다는 점입니다. 고금리 국면에서 사적 자본은 이야기보다 납품과 특허를 먼저 봅니다.

창업가에게 남는 세 문장

첫째, 공개시장의 하루 변동은 사적 라운드의 조건을 즉시 바꾸지 않습니다. 라운드는 계약으로 닫힙니다. 둘째, 그러나 다음 라운드의 밸류에이션은 공개시장의 할인율을 따라옵니다. 오늘의 조건을 영구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셋째, 정부 과제와 민간 투자를 함께 설계하면 라운드의 속도와 조건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티포스가 조기 마감한 방식이 그 예입니다.

VI. 교육과 일하는 방식

Two domains, one question: who designs the system?

영역	확인된 변화	실무 함의
에듀테크·교육	교육부가 16개 AI 과목(초 6·중 2·고 8)을 현장 교사가 직접 집필하는 인정교과서로 개발 중. 2026년 역량 강화·개발, 2027년 시범 적용·심의, 2028년 3월 정식 적용	교과서·교육자료를 함께 만드는 구조라 콘텐츠와 LMS를 분리 판매하기 어려워집니다
교육 제도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디지털 파일을 점자·음성으로 변환 가능한 형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	접근성 변환은 선택 기능이 아니라 납품 요건이 됩니다
경영·HR	맥킨지 2026년 조사: AI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조직 89%, 전사 확산 44%, 영업이익 기여 37%, EBIT 5% 이상 기여 6%	도입률과 성과의 52%p 격차는 모델이 아니라 프로세스 재설계에서 나옵니다
AI 원가	맥킨지는 파일럿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면 AI 지출이 평균 4배가 되고, 과제당 비용(cost per task)을 봐야 한다고 정리. 한 사례에서 모델 라우팅과 캐싱으로 50~60% 절감	AI 예산은 사용량 관리 체계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과 업무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

교육부의 AI 교과서는 **교사가 직접 설계**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맥킨지의 AI 원가 분석도 결론이 같습니다. AI를 기존 업무 위에 얹으면 비용만 늘고, 역할·권한·검증 지점을 다시 설계하면 성과가 납니다. 두 영역 모두 "누가 설계하는가"가 "얼마나 좋은 모델인가"보다 중요해진 국면입니다. 이 질문의 실증 근거는 별도 발간물인 학술·연구 인사이트에서 19개 대학 7,200명 데이터로 이어집니다.

경영 AI의 성과는 모델 성능이 아니라 설계 권한의 위치에서 갈린다

English Summary

For global readers and archive

English Summary

Korean equities reclaimed the 5,000 level on November 24, with the KOSPI closing up 6.32 percent at 5,006.03 after touching 5,065.74 intraday. The KOSDAQ rose 4.79 percent to 665.88 and buy-side sidecars were triggered in both markets, one day after a sell-side sidecar halted programme selling. Foreign investors bought KRW 739 billion, ending seven consecutive sessions of net selling, and institutions bought KRW 869 billion. Retail investors sold KRW 2.04 trillion, the mirror image of November 23, when individuals and foreigners sold and institutions absorbed the supply.

Three bills remain

First, the Bank of Korea meets on November 26; 32 of 34 economists in a Reuters poll expect a 25-basis-point rise to 3.25 percent, with a terminal rate of 3.50 percent in the first quarter of 2027. October consumer prices rose 2.8 percent and third-quarter GDP grew 1.0 percent on the quarter and 3.4 percent on the year. Second, the US Trade Representative is expected to publish the results of its Section 301 investigation into structural overcapacity across 16 trading partners, including Korea, possibly this week; steel, autos,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are in scope, and the question is whether new duties are added on top of the 12.5 percent already in place, breaching the 15 percent ceiling agreed with Washington. Semiconductors accounted for 49.0 percent of Korean exports in October.

What the two days in chips showed

Nvidia rose 31.5 percent on November 23 and fell 5.86 percent the next session, while Micron lost 11.01 percent and the Dow gained 0.87 percent. Anthropic, which raised USD 81.3 billion in the largest IPO on record at USD 83 a share, traded at USD 81.91, below its offer price. Private capital kept moving into companies with contracts and patents: Ettifos raised KRW 31.1 billion in a Series C, Unlaced Brand KRW 32 billion in a Series B, and Curebus KRW 23 billion pre-IPO. McKinsey reports that AI spending quadruples from pilot to production, making cost per task, not cost per token, the number to manage.

Takeaway **The rally restored the index, not the discount rate. Three bills are due this week**